

이슈브리프

No. 2026-1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과 북러 관계 진행 현황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2026-06-1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은 2026년 현재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 협상 역시 영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대러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쟁 장기화는 국제질서 재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 단극질서의 종식과 다극질서 형성 과정으로 인식하며, 중국·북한·이란 및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협력 구조는 제재 회피, 군사협력, 비(非)서방 연대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중국·이란·북한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 북한-러시아(이하 북러)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기반으로 군사·경제·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군수물자와 병력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후원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교통·관광·문화·교육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면서 사실상의 전략적 동맹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가 핵탄두 제조 기술의 대북 이전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러 간 미사일, 우주, 위성, 방공체계, 잠수함, 전자전, 드론 등 재래식 및 전략 기술 분야의 협력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전쟁 종전 협상 추이를 살피며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과 안보 위협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와 대비의 이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북극·극동·물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보존하며 향후 한국-러시아(이하 한러)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균형을 유지하는 실용적 대러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과 종전 협상

1) 러시아의 국제질서 인식과 종전 협상의 기반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러우 전쟁 전개와 종전 협상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를 해체하고, 주권과 다극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 SMO)'으로 명명한 러우 전쟁이 러시아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대조국전쟁(1941년 6월 22일~1945년 5월 9일) 기간을 훌쩍 넘기면서, 대내외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에 이를 지역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로만 한정한다면 러시아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러우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에 머무르지 않고 전후 80년간 유지된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의 규칙, 권력 배분, 경제 안보와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질서가 효율성보다는 안보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전환을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유엔(United Nations, UN) 중심 국제법 질서와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가 충돌하는 상황을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세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국제법 준수, 내정 불간섭, 그리고 모든 국가가 독립적으로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세계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¹ 러시아는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보다 자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에서 국제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서구 중심 국제질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가 현재 국제질서를 강대국 간 세력균형 질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러시아식 어법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법 준수와 내정 불간섭,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한 다극 질서의 제도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중국, 인도, 글로벌 사우스 등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지역별·권역별 중심 국가가 병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비서방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가서 러시아와 연대한 국가들이 '세계 다수(World Majority)'라는 점을 강조한다.²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이탈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안보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로의 공급망 전환, 탈달러화 추진, 유라시아 물류 회랑 확대 등을 통해 서구 중심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에너지와 자원 중심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규범 중심에서 힘의 균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체의 구조적 해체 과정으로 인식한다. 또한 현실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 영향권 경쟁, 세력균형 기반 안정 추구, 협력보다 경쟁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강대국 간 경쟁으로 불안정 상황에서 러시아는 세력 균형을 통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³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미국 중심 단극질서가 약화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대체할 안정된 다극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불안정한 과도기라는 현실적인 조건도 받아들이고 있다.⁴

따라서 러시아는 전쟁과 종전 협상을 통해 대서양 질서에서 자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중국·북한·이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역에서 새로운 지분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 지역 분쟁을 넘어, 유럽 안보 질서의 재편과 글로벌 진영화 심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과 특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6년 현재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초기의 기동전 양상에서 벗어나 장기적 소모전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전쟁은 전술적 차원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반복되고 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는 전쟁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돌파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점진적인 영토 확장을 이루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붕괴시키거나 전략적인 승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선은 전체적으로 고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나, 추가 진격 속도는 둔화된 상태이다.⁵

그래도 러시아는 돈바스(Donbas), 자포리자(Zaporizhzhia) 등 주요 전선에서 보병 중심의 소규모 공세와 지속적 포격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한 전진을 특징으로 하는 점진적 압박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전력, 난방 등 핵심 기반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사회적 피로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저비용 드론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전쟁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선에서의 결정적 승리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지속 능력을 약화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는 방어 중심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국지적 반격과 후방 타격을 병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부족과 탄약·방공 자산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 붕괴를 방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드론 등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핵심 부품을 적절하게 공급받아 군수 산업을 부활시켰으며, 장거리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내 정유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타격함으로써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⁶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2026년 봄과 여름에 걸친 러시아군의 공세를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러시아 군이 점령했던 영토 일부를 탈환하기도 했다.⁷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전쟁의 양상을 국가 지속 능력 경쟁으로 확대하고 있다.⁸ 이는 전쟁의 장기화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전황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은 공세 비용과 방어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소모전의 특징을 보인다. 러시아는 인력과 화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상자와 장비 손실을 감수해야만 점령지를 넓힐 수 있어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높은 방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지속 능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쟁은 전선 밖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및 군사 자산 공격은 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 국가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직접 겨냥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산업 생산 능력과 에너지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전쟁이 국가의 장기 지속 능력을 둘러싼 총체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장기 소모전에 의해 종전 협상의 필요성은 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고, 서방 국가들의 군사·재정 지원 부담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국제사회 전반으로 종전 또는 휴전 협상 필요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중재 의지, 국제적 압박, 전쟁 피로감 등이 결합하면서 협상이 가시적 국면으로 진입한 점이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영토-안보-제재가 연계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종전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점령 지역의 영토 인정과 미점령 돈바스 지역 전체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완전 회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협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타협이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둘째, 안보 보장 관련,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또는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 및 완충지대 설정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유예를 두고 협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단계적 완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재는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은 부분적 진전과 구조적 교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미국이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조율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종전 협상(deal-making diplomacy) 방식은 협상을 진행하는 동력이 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정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이 성립하더라도 그것은 전쟁의 종결이라기보다, 재무장과 재협상을 동반한 불안정한 동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대한 전략적 돌파가 없다면 전쟁은 2026년을 넘어 지속되거나 오히려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상 자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커서 완전한 종전보다는 휴전 또는 전선 동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황 역시 어느 한쪽도 결정적으로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포괄적 평화협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전면 평화보다 특정 기간-지역-시설에 한정된 부분 휴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포로 교환, 흑해 항로 안전 보장 같은 제한적 합의가 먼저 논의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인도주의, 포로 교환 등 제한적 협력은 진행됐다.

향후 협상 구조는 일련의 몇 가지 시나리오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 내용도 명확한 단일 경로가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는 평화협정 없는 휴전으로서 군사적 충돌 중단, 전선 동결, 제재 일부 완화 등 근본적인 해결 없이 군사적 안정만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재 협상 흐름은 완전한 종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휴전 또는 전선 동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전쟁 지속 또는 일방적 동결이 병행하는 관리된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패하여 전선이 유지된 상태로 전쟁 장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이에 따라 대러 제재는 지속되거나 상황에 따라 강화되는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평화협정을 통한 종전으로 공식적인 전쟁 종료, 제재 단계적 해제, 전후 질서 재편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중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쟁 수행 능력 고갈, 정치적 타협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의 일부 영토 확보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확보라는 상호 양보형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면적 종전도, 완전한 확전도 아닌 관리된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적인 긴장 완화 국면은 타협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점진적·단계적 형태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간헐적인 단기 휴전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이를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서 신뢰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협상보다 군사적 소모를 통한 압박이 지속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은 결정적 승자가 없는 장기 소모전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전선의 변화는 제한적인 반면 전쟁의 영향은 국가 전체로 확장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쟁이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 사회, 기술 영역을 포함하는 총체적 경쟁으로 발전하면서, 단기간 내 종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전황은 전술적 진전은 있으나 전략적 결말은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사정

1) 러시아 권력 엘리트 변화와 권위주의 심화

전쟁은 러시아 엘리트 구조를 전시 동원형 권위주의로 재구성하면서 실로비키(Siloviki) 중심의 권력이 강화하면서 새로운 전쟁 엘리트의 등장,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재배치, 비즈니스 엘리트의 종속화와 재편 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쟁 이후 군·정보·치안 기관 출신 엘리트, 즉 실로비키의 구조적 우위는 더욱 강화됐다. 전쟁 이후 국방·안보·법집행 지출이 전체 연방 예산의 약 40%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실로비키들은 정치·군사·경제 전반에서 핵심 의사결정 집단으로 영향력이 증대됐다. 하지만 이들의 능력 한계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 오판과 정보 수집 체계의 문제점, 특수군사작전의 비효율성, 프리고진 반란 대응 지연 등으로 실로비키 조직 간 경쟁·중복·책임 회피 구조가 노정됐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군 인사 교체, 숙청, 권력 재조정하면서 권력을 강화했다.⁹ 과거에도 푸틴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역이용하여 통제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전쟁 이후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엘리트의 층원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연설에서 “새로운 엘리트는 전쟁 참전 군인”이라고 언급하였고, “영웅의 시대(Время героев)” 프로그램을 통해 참전 군인을 지방정부 및 행정직에 임명하기 시작했다.¹⁰ 참전 병사를 엘리트로 편입하면서, 체제 충성도가 검증된 인물 중심의 인사 체계로 정치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한 것이다.

전쟁 이전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산업통상부의 테크노크라트는 정책 자율성을 갖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전시 경제 관리자로서 역할이 바뀌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제재 대응, 금융 안정, 전시 재정 운영에서, 국방부와 산업부는 전시 물자 생산과 제재 회피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¹ 하지만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 등 재무·금융 관료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y Belousov) 국방장관 등 국가주의 관료 간의 권력 균형이 국가주의 관료의 영향력 확대로 깨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 성장세를 관리할 역량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즈니스 엘리트의 국가 권력 종속화와 더불어 러시아 엘리트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인과 올리가르히(Oligarch)는 군수·산업 분야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새로운 전시 경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 철수 자산의 저가 매각 및 재배치, 국가안보 명분의 국유화 확대, 친(親)크렘린 인사에게 자산 이전 등에 의한 국가 주도의 자산 재분배 과정은 글로벌 지향 비즈니스 엘리트층을 충성 기반 국내 지향 비즈니스 엘리트로 교체했다.¹² 비즈니스가 국가 의존적 사업 구조로 강화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독립적 이해집단에서 국가 의존적 전시경제 협력자로 전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쟁 이후 러시아 엘리트는 다원적 경쟁 구조에서 국가 권력 중심의 전시 동원 체제로 재편됐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VTsIOM 4월 19일 71%, FOM 71%, Levada Center 79%)으로 떨어졌지만¹³ 러시아 정치 체제는 안정적이며 전쟁에 대한 엘리트들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권력 엘리트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강화하며 정책 비효율을 낳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키우는 문제를 안게 됐다.

2) 러시아 경제 현황과 전쟁의 일상화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는 제재와 전쟁이라는 이중 충격 속에서도 외형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단기적 대응과 상황 적응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겉으로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취약성이 누적되는 관리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은 에너지 수출이다. 유럽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로 수출 경로를 전환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산 원유는 국제 가격 대비 큰 폭의 할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제재 회피를 위한 그림자 함대 운영¹⁴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에너지 수출이 재정의 기반이면서도 동시에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재정 측면에서도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전쟁 수행을 위한 지출 확대와 에너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부펀드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22%, 법인세 25% 등 인상하였고, 이는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⁵

경제 성장 역시 단기적 회복과 장기적 둔화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3~2024년에는 전시 지출과 국가 주도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이는 군수 산업 중심의 성장이다. 반면 민간 투자 감소, 생산성 저하, 기술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적 성장 기반은 약화되고 있으며,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산업 구조에서도 군수 산업이 성장하는 반면 일반 제조업은 위축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주요 산업은 생산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균형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쟁 수행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 재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또한 왜곡되어 군 동원과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력 공급 제약과 국가 지출 확대의 결과이다. 임금 상승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는 실질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사회는 전쟁을 일상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며 시민들은 전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일상생활 속 문제로 인식하며, 정치적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러우 전쟁이 정치화되지 않는 전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국가 개입과 에너지 수출을 기반으로 단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약화와 저성장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특수군사작전으로 명명하며 전쟁과 일상을 분리한 결과, 전쟁이 비정치화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¹⁶ 이러한 이중성과 독특함으로 향후 러시아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대외협력의 구조와 복려 관계의 변화와 특징

1) 러시아 대외협력의 구조적 변화

러시아 대외협력 구조는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회피 네트워크에 의한 전략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면서 군사·경제·외교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경됐다. 비서방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협력의 성격 자체는 변화했다.

전쟁 이전 협력이 에너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그리고 다자주의 기반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쟁 이후 협력은 제재 회피와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으로 변화했다. 군사협력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기술 분야에서는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 또는 자립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대외협력이 제재 환경 속에서 체제 유지와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러시아 대외협력에서 특히 중국, 이란, 북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서 경제·무역 협력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증가하는 비대칭 구조를 띠고 있다. 이란은 군사·전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드론 및 군수 협력 등을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북한은 전쟁 이후 가장 빠르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발전한 국가로, 군사적·외교적 협력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했다.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기술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대외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제재 회피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다. 서방의 금융 및 기술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기존 글로벌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 외교,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며, 제재 국가 간 연대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국은 러시아 대외협력 기본 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삼각관계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러시아-북한-중국 관계는 삼각동맹이라기보다 각각의 양자 관계가 결합된 구조를 지닌다.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요약하면, 러시아 대외협력 구도의 기본 축은 탈서방화, 제재 회피 네트워크, 군사 중심 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도는 향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러시아-북한 관계 현황과 발전

2025년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심화와 구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은 2023년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제도화됐다. 2025년 이후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제 전쟁 수행과 체제 운영에 직접 연결되는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2~2024년 북러 간 협력이 외교·군수·조약 중심이었다면, 2025~2026년에는 전쟁 경험의 기억화, 기념화, 체제 선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북러 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군사적 상호보완성의 심화와 전략적 이해관계의 결합이다. 러시아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포탄, 로켓, 미사일 등 대규모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병력과 노동력까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전쟁 수행 능력을 보완해 왔다. 2026년 3월 기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수물자는 약 3만 3천 개 컨테이너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수천만 발에 달하는 포탄과 다양한 무기 체계를 포함하는 수준이다.¹⁷

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외화 수입, 해외 노동자 파견 기회,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성·우주·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체제 생존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교환 구조는 양국 관계가 군사·경제·외교가 결합된 실질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북한이 기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전략자산 기술 이전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핵탄두 설계, 핵물질 생산 등 핵심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사일 운용체계, 우주위성기술, 방공체계, 잠수함, 전자전, 드론 등 재래식 및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협력 확대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북러 군사협력의 핵심 쟁점은 북한의 핵전력 운반수단과 전략무기 체계의 성능 향상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북한의 파병이 공식화된 이후 러시아는 쿠르스크(Kursk) 전선 등에서 북한군의 공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전쟁의 공동 수행자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도 파병부대의 희생과 공적을 체제 선전의 핵심 소재로 활용했다. 2026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파병부대 가족을 신년 행사에 초청하고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파병 장병의 희생이 북러 간 '전투적 우의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다.¹⁸ 북러 관계는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동맹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러시아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으로, 양국 관계의 질적 전환을 상징한다.

경제적·사회적 교류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이후 북러 간 관광, 항공, 철도, 교육, 문화, 체육 교류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접촉면이 크게 넓어졌다. 특히 러시아인의 북한 방문은 급증하여 2025년에는 약 1만 명 수준에 달했으며¹⁹, 직항 노선 개설과 관광 확대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2026년 4월 러시아는 원산에서 양국 우호병원 착공식을 가졌으며 2026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했던 두만강 자동차 다리 역시 6월 19일 앞당겨 완공할 예정이다.²⁰ 이로써 북러 관계는 군사 중심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교류와 인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들어서는 양국 관계는 더욱 제도화되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포함한 5개년 협력 계획(2027~2031년)을 논의하고 있으며²¹,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2026년 4월 26일 평양에서 개최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출처: 『한겨레』, “북 ‘해외 파병기념관’ 평양서 준공식...러시아 국방장관 참석”, 2026년 4월 27일.

또한 미디어 콘텐츠 교환을 포함한 선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보 및 이익 수호를 위한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정의롭고 신성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해진다.²² 또한 조선중앙통신(KCNA)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국 간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기울인 진심 어린 노력”에 관해 러시아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 있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을 맞아 축전을 보내 쿠르스크 지역 군사 작전에 참여한 북한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²³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는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가 합의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²⁴ 결국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에는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북러 관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장기화를 견디기 위한 군수·인력·외교적 후방기지로 기능한다.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에게 북한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이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에, 러시아는 체제 생존과 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 후원국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확보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양국 관계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러시아는 북한, 이란 등과 같이 반서방 5개국 유라시아 다극화 공동선언을 추진하면서²⁵ 다극화 질서의 사례로 제시하고, 북한은 반미 연대의 실천으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

북러 관계는 과거의 전술적 협력이나 제한적 외교 연대를 넘어, 전쟁 수행, 군사기술, 경제 교류, 이념적 결속이 결합한 실천적·복합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북아와 유럽 안보를 동시에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는 완전히 대등한 동맹이라기보다 상호 필요에 기반한 거래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쟁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지금의 북러 관계가 냉전적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서방 협력 축 중 하나로 평가할 것이다.

국제질서에 대한 시사점 역시 크다. 첫째, 북러 밀착은 유엔 대북제재 체제의 약화를 보여준다. 과거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부분적으로 동참했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통해 제재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자로 변했다.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의 외화 확보와 식량 및 에너지 공급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러 간 협력이 북한 경제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러 협력은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지역문제에서 유럽 전쟁, 유라시아 안보, 글로벌 반서방 연대와 연결된 문제로 확대시킨다. 북한의 포탄과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식량·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북한 체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안보와 유럽 안보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며²⁶, 북핵 문제는 비핵화 자체보다 핵 사용 억제와 위기관리를 위한 안정적 구조 구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에 등 핵개발과 관련 기술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위성, 미사일, 전자전, 방공망, 군사기술 및 군수산업 협력 등에 의해 북한 핵 전력의 운영 능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6년 들어 북러 관계는 전쟁 경험의 기념화와 동맹 상징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북러 관계는 전술적 군사협력이 아니라, 미국 중심 질서 약화와 다극질서 형성 과정 속에서 등장한 전략적·방어적 협력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는 북러 협력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와 경제협력 재구성 속에서 한국 역시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균형 유지 자체를 핵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 에너지, 물류, 자동차, 가전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분야에서 협력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한러 관계가 복원될 경우 전쟁 이전 자원과 상품을 교환하는 교역의 비대칭 구조를 넘어서는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러 정책은 러시아 외교가 북한 일변도로 고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종전 협상의 추이를 봐 가면서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되 현재의 대러 제재 기본 틀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 문화, 기후, 물류 등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협력이 한국 안보를 위협한다면 한러 관계 복원과 경제·에너지·북극항로 협력 복원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¹ Reuters, Putin says the world is getting more dangerous but is silent on Maduro and Iran, 2026.1.15.

² Reuters, Putin says BRICS works for 'global majority', August 23, 2023; Sergei A. Karaganov, Russia's Policy Towards World Majority, Russia in Global Affairs, 2023.

³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Fundamental documents, 31 March 2023.

⁴ Роман Фесенко, Новый мировой порядок: между многополярностью, фрагментацией и борьбой за реформу глоб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12.05.2026.

-
- ⁵ Washington Post, Putin is failing. These charts prove it. March 4, 2026.
- ⁶ Moscow Times, Ukraine Fires Wave of Drones at Russia on Last Day of Key Economic Forum, June 6, 2026.
- ⁷ The Guardian, Ukraine war briefing: Russia losing on the ground so pivots to air war, say analysts, 4 June 2026.
- ⁸ Al Jazeera, Ukraine drone attacks hit nuclear power plant, Baltic port, 3 May 2026; Reuters, Russia intensifies drone attacks on ports, Ukraine says, May 4, 2026.
- ⁹ Center for Security Studi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323: Siloviki, 2025.
- ¹⁰ President of Russia, Meeting with participants in Time of Heroes programme, June 14, 202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4292> (검색일 2026년 5월 5일).
- ¹¹ Center for Security Studi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329: Russia's Wartime Technocrats, 2025.
- ¹² Center for Security Studi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326: Business Elites and State-Business Relations, 2025.
- ¹³ VTsIOM <https://wciom.com/our-news/ratings/trust-in-politicians>; FOM <https://fom.ru/Politika/10946>; Levada Center(<https://www.levada.ru/en/ratings/>) (검색일 2026년 5월 24일).
- ¹⁴ Robin Brooks & Ben arris, Where did Russia's shadow fleet come from? February 27, 202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ere-did-russias-shadow-fleet-come-from/>
- ¹⁵ Moscow Times, More Taxes for More War: Unpacking Russia's 2026 Budget, October. 7, 2025.
- ¹⁶ Center for Security Studi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333: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War in Russia, 2025.
- ¹⁷ 연합뉴스, 軍 "北, 러에 컨테이너 3만3천개 반출...152mm포탄 1천500만발 규모", 2026.03.01.
- ¹⁸ 연합뉴스, 김정은, 러시아 파병군 가족과 신년행사..."하루빨리 상봉하길", 2026.01.01.
- ¹⁹ SPN 서울평양뉴스. "北 방문한 러시아인 2025년 역대 최고치 기록...1만 명에 달해", 2026.02.10.
- ²⁰ 연합뉴스,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6월 19일 완공예정", 2026.04.21.
- ²¹ DW, Russia, North Korea agree 'long-term' military cooperation, April 26, 2026.
- ²² Известия, Ким Чен Ын заверил Россию в будущей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27 апреля 2026.
- ²³ Профиль, КНДР заявила о поддержке политики РФ на встрече Ким Чен Ына с Белоусовым, 27.04.2026
- ²⁴ РИА Новости, Песков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 о визите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23 мар 2026.
- ²⁵ ТАСС, Россия, Белоруссия, Иран, КНДР и Мьянма начну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Евразийской хартии, 03 февраля, 2026.

²⁶ ТАСС, Лавров назвал невозможным разговор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11 февраля, 2026.